서울시, '초복' 앞두고 닭 · 오리 위생점검

닭과 오리 등 보양식 식재료의 수요가 많아지는 '초복(初伏)'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시가 위생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7월 1~14일 2주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닭과 오리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보양식 식재료 위생점검을 시행했다.

시는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제품 냉장 둔갑행위 등을 점검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물질과 항균물질, 부패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시는 즉시 압류 · 폐기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내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안심하고 닭과 오리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지훈 기자 2013. 06. 28

상한 오리주물럭 판 롯데마트 빈축

상한 음식을 판매한 한 대형마트가 이를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6월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에 거주하는 주부 A(36)씨는 6월 29일 오후 8시20분께 인근 롯데마트에서 할인판매하는 오리주물럭을 샀다. 해당 제품은 영업 마감 시간을 앞두고 원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됐다.

가족들과 함께 시식을 해본 A씨는 쉰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장을 찾아가 상품교환을 요구, 항의했다. 롯데마트 측은 항의하는 A씨에게 적절한 사과 및 조치를 취하는 대신, 환불 및 5천원권 상품권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측은 올 들어 가장 높은 영상 31.6도의 기온을 기록한 이날 매장 냉장고에 기계적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식품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낮시간대 냉장고 상태가 잠시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2013. 06. 30

복(伏)이 왔구나…
육계 · 오리 산지가격 '강세'

여름철 '복경기'를 맞아 육계와 오리의 산지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오리협회 등에 따르면 산지 육계값(1㎏ 기준)은 1월 1446원에서 6월에는 1829원으로 오른 데 이어 초복(7월 13일)과 중복(7월 23일)이 들어 있는 7월에 접어들어선 7월 5일 현재 2045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 20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올해 닭고기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경기불황을 의식한 계열업체들의 입식물량마저 감소하면서 산지 육계값은 말복(8월 12일) 직전까지는 2000원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5

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은 4만3707t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만7619t)에 비해 24.1%나 줄었다. 대한양계협회는 7월 닭고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6월 육용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지난해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닭고기 총 공급량이 줄었지만 말복 이후에는 도계량이 늘고, 소비는 줄어 산지 닭값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리값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오리협회가 조사한 산지 오리가격(생체 3kg 기준)은 7월 5일 현재 6300원으로, 1년 전(4580원)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다. 오리 업계는 국산 오리고기 공급량이 부족해 앞으로 8월까지 산지 오리가격은 7000원대까지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리 생산자단체는 올해 오리 사육마릿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한 달 동안 계열업체와 종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종란 감축운동을 펼쳐 전체 종란의 29.3%인 236만개를 폐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8월 이후엔 사육마릿수가 다시 늘고, 냉동 재고량 증가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산지 오리값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민신문 김광동 기자 2013. 07. 10

닭 · 오리 집단 폐사…
폭염과 전쟁 치르는 농가

〈앵커〉 더위에 민감한 가축들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같은 가금류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의성의 한 양계장입니다. 죽은 닭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3천 700여 마리의 닭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를 기르는 농장들은 비상입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이 양계장 내부 기온은 32도. 닭들이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대형 환풍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지범/양계 농장주** : 닭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한 33도 이상 올라가면 견디질 못해요, 그냥 앉아 죽어요.]

좁은 닭장에 갇혀 알을 낳는 닭들은 더위에 더 민감합니다. 여름이면 계란 생산량이나 크기가 10% 정도 줄어듭니다. 환풍기를 강하게 돌려서 양계장 안의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더운 공기를 계속해서 빼줘야 합니다.

[**이태종/양계 농장주** : 저희한테는 전시체제입니다. 비상이에요, 혹시라도 정전이 10분이나 5분 정도 되면 저희는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NH 농협 손해보험이 지난 12일 동안 가축 재해보험을 분석한 결과 폐사한 닭과 오리가 5만 4천 마리에 이릅니다. 축산농가들은 햇볕을 반사하도록 축사 지붕을 특수 코팅 처리하고, 가금류에 차가운 물을 계속 공급하는 등 더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뉴스 2013. 07. 10

한의대 교수 출신,
기능성 유황훈제오리 개발

경희대 한의대 교수 우초 안덕균 박사가 개발한 유황훈제오리 슬라이스가 화제다. 건국대 친환경 식

자재 연구소와 공동으로 만든 이 오리는 총명식물 농축진액과 녹용중탕 농축액이 함유돼 있어 치매 예방 및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용은 일반적으로 조혈 작용을 향상시키고 심혈관을 강화시켜 영양성분 흡수율을 증가 시킨다. 특히 녹용에 함유돼 있는 강글리오사이드(뇌의 구성성분)가 뇌에 원활한 영양 공급을 도와 기억력 및 학습능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오리고기도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체내의 지방과다 축적에 의해 유발되는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스태미너 식품이다. 오리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대사조절기능이 높아져 몸 안에 쌓인 각종 독을 풀어주고 피 순환을 돕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람의 신체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아미노산과 무기질, 비타민C, E, B1, B2, 칼슘, 인, 철, 칼륨 등 영양도 풍부하다.

스포츠한국 2013. 07. 11

VGX인터 "신종조류인플루엔자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 박영근 사장 인터뷰 "치료 가능성 확인"

올 봄 중국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아형인 신종조류인플루엔자(H7N9)가 발생했다. 신종조류인플루엔자는 아시아 지역으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130명 이상이 감염되고, 37명이 사망했다.

VGX인터는 DNA 백신으로 신종조류인플루엔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근 VGX인터내셔널 사장은 7월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신종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가금류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올 가을 신종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VGX인터는 팬데믹(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대변이를 일으켜 호흡기 전염병을 유행시키는 현상)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VGX인터는 올 4월 미국 이노비오사와 공동으로 신컨기술을 이용해 H7N9 신종조류인플루엔자 DNA백신을 도출한 바 있다. 박 사장은 "최근 신종조류인플루엔자 DNA백신에 대해 동물실험을 수행한 결과, 100% 예방능력과 생존율을 확인했다"면서 "동시에 유도된 T세포 면역반응이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치료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신종조류인플루엔자 DNA백신의 기술력에 대한 박 사장은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는 "신종조류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은 약 30%로 H5N1 조류인플루엔자의 치사율(60%)보다는 낮지만 신종플루(H1N1)의 치사율(21%)보다는 높다"고 지적했다. VGX인터는 만약 H7N9 신종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승인 하에 응급임상을 통해 DNA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박 사장은 "7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인플루엔자 심포지엄 총회에서 신종조류인플루엔자 DNA백신 비임상연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VGX인터는 신종조류인플루엔자 뿐 아니라 신종 플루와 같은 팬데믹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DNA백신, 계절성 독감 DNA백신, C형 간염 DNA백신 등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비임상연구를 마무리한 C형 간염 치료용 DNA백신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식약처에 임상시험승인신청서(IND)를 제출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C형 간염 치료용 DNA백신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독성시험을 마무리 중에 있다"며 "체내 동태분석연구도 분석이 완료돼 하반기 내에 무난히 식약처에 IND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미 국제규격에 맞는 임상시료의 생산도 완료했다고 그는 귀띔했다. 박 사장은 "지난달 한국 식약처와 품목설명회를 진행했고 서울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부산대 병원 등과 임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임상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2013. 07. 12

여름철 보양식 오리 몸값 껑충 가격 인상폭 닭 앞질러

'닭보다 오리'

여름철 보양식으로 오리고기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축 마릿수 증가율이나 산지가격 면에서 닭고기를 크게 앞질렀다. 통계청이 7월 12일 밝힌 2분기 가축동향 조사기준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닭의 도축 마릿수는 6957만 마리로 지난해 6월(7390만 마리)에 비해 5.9% 감소했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1㎏당) 인상 폭도 3.7%(1668→1730원)에 그쳤다.

반면, 이 기간 오리고기 도축 마릿수는 4.1%(806만→839만 마리) 증가했고 가격은 1527원에서 2180원으로 42.8% 급등했다. 한국오리협회는 오리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8월까지 오리고기 가격이 1㎏당 2300~24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닭고기 가격도 2000원까지는 오를 전망이지만 오름세가 오리고기 가격에 비해 떨어진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오리 생산자단체들이 오리 사육 마릿수를 자율적으로 줄이면서 산지 오리 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서 "여기에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는 닭보다 오리가 좋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오리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김양진 기자 2013. 07. 13

여름 특수 광주 · 전남 닭 · 오리 사육 증가

여름 나들이 철을 앞두고 광주 · 전남지역 닭 · 오리 사육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2013년 2분기 가축동향 조사'를 벌인 결과 6월 광주 · 전남 지역의 닭 사육 마릿수는 2047만7824마리로 전 분기보다 29.8% 증가했다. 종계는 47만100마리로 육계, 산란계 입식물량이 증가하면서 전 분기보다 48.5%, 육계는 1639만8600마리로 6월 이후 신규 입식으로 37.7% 각 증가했다.

오리도 563만446마리로 전 분기보다 15.7% 늘었

다. 육용오리는 3월 이후 산지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 분기보다 13.8% 증가했으며 종오리는 오리 수요량과 소비량 증가 등 공급물량 공급에 대비해 신규 입식마리수를 늘리면서 30.8%가 급증했다.

광주일보 김대성 기자 2013. 07. 15

오리 · 거위털값 폭등… 아웃도어 다운패딩 도미노 인상 초읽기

아웃도어 브랜드의 겨울 대표상품인 다운패딩의 가격이 줄지어 인상될 전망이다. 필수 원자재인 오리털과 거위털 가격이 크게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4일 업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등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현재 덕다운(오리털)과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의 가격 책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북유럽에서 생산되는 고급 다운의 물량 감소로 깃털과 솜털 원가가 30%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9010 덕다운(솜털 90% · 깃털 10%) 가격이 ㎏당 약 550위안(약 1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두 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요 브랜드들은 늦어도 8월 중순까지 패딩 출고가를 확정해야 돼 깃털과 솜털 원가 인상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패딩 가격 인상률을 평균 5~10%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투데이 강구귀 기자 2013. 07. 15

복날, 삼계탕만 먹었던 나를 반성한다

보양식이 생각나는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삼계탕, 추어탕, 장어구이 등 다양한 여름철 보양식이 있지만 이러한 보양식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 보양식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한다. 체질 별 적합한 보양식과 각기 다른 보양식의 효능에 대해 이광연한의원 이광연 원장이 조언을 해 주었다.

◈ 너에게는 보양식, 나에게는 독??

복날이라고 무조건 삼계탕을 먹으러 간다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은 "체질 별로 적합한 보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보양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다. 그래서 찬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 오리고기, 전복, 해삼탕 등이 적합하다. 소음인은 몸이 차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을 가진 추어탕, 삼계탕, 보신탕 등이 좋다. 살집이 많은 태음인은 육개장으로 기의 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콩국수, 수박화채, 매실 등이 보양식으로 적합하다. 태양인은 기름진 육식을 피하고, 담백한 해산물과 메밀국수, 포도 등이 좋다.

◈ 닭이냐 오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지만 효능이 약간 다르다. 닭고기는 다른 육류보다 육질이 가늘고 연하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빠르다. 먹으면 바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닭고기를 육류의 산삼이라고 한다. 이 원장은 "한방적으로 닭은 열성(熱性) 식품으로 냉해진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삼계탕에 들어 있는 인삼은 땀으로 소진된 기운을 보충해준다. 오리고기는 단백질 중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

다. 허한 것을 보충하고, 오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몸의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무더위에 지친 몸을 식혀준다.

노컷뉴스 2013. 07. 16

웰빙음식 '누룽지'와 '훈제오리'를 찾아서!

또 다른 숫자 85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방명호 기자가 찾은 두 번째 기업은 전북 정읍에 위치한 훈제오리 생산업체 농업법인 유성농산이다. 1998년에 설립되어 훈제오리를 생산해 오고 있는 유성농산은 국내 농가에서 무항생제 유황오리를 직접 사육하고, HACCP 기준에 따라 도축과 가공을 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을 해오고 있다.

오리는 불포화지방산은 물론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우리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식품이다. 훈제오리를 만들기 위해 도축된 오리들은 정읍 공장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그 다음 훈연기에서 2시간여의 훈제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 훈연온도는 72도 이상을 유지해야 맛있는 훈제오리가 완성된다. 훈연이 끝난 오리는 바로 진공포장 작업이 이뤄지고 포장된 훈제오리는 마지막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숫자 85의 정체는 무엇일까? 숫자 85는 바로 포장된 훈제오리가 살균되는 물의 온도다. 85도 이상에서 살균과정을 거쳐야 유해세균이 완전히 차단되어 안전한 훈제오리가 만들어진다. 〈방기자의 방방곡곡〉에서는 유성농산의 오리사육 농가와 훈제 오리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유성농산의 훈제오리 맛과 품질관리 비결을 소개한다.

MTN 경제매거진 방기자의 방방곡곡 2013. 07. 17

'폭염 · 폭우'가축 16만마리 이상 폐사… 축산농가 비상

지난달(6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폭우로 16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3주 동안 남부지방의 폭염과 중부지방의 폭우로 폐사한 가축은 16만 5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닭이 13만 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가 2만 마리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계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피해만을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폐사한 가축은 더 많을 것으로 농협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JTBC뉴스 2013. 07. 22

삼계탕보다 더 특별한 보양식 레시피 3선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 '정말덥구나~'하고 생각해보니 '초복'이 지나고 벌써 중복! 초복, 중복, 말복은 열흘 간격으로 오네요.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 전통적으로 몸을 보신

할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보양식이 고민입니다. 초복에는 외식으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손수 만들어야 할까 봐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 준비하시나요? 더운 날씨 가족을 위해서긴 하지만 오래 공을 드려야 하는 보양식, 사실 덥고 짜증도 나잖아요. 삼계탕, 백숙, 영양탕 등등 대중적인 보양식 챙겨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만드는 사람도 좋고 먹는 사람도 즐거운 보양식 레시피를 공유하려고 해요. 내 입맛도 지키면서, 중복 기분도 내는 색다른 보양식! 초복을 남들 먹는 보양식으로 지나가셨다면, 중복맞이 보양식 좀 더 스페셜하게 보내세요. 중복맞이 남다른 보양음식 3가지입니다.

1. 상받은 특별 레시피! "홍삼찰밥삼계롤" (중략)
2. 고기 좋아하는 남편을 위한 달달한 보양식, "데리야끼통삼겹찜" (중략)

3. 다이어트 걱정 없는 "오리찹쌀구이와 수삼샐러드"

날씨도 더운데 이것저것 만들기 귀찮을 때는 덥지 않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간편하게 만드는 보양식을 먹고 싶다면 수삼 샐러드를 곁들인 오리찹쌀구이를 강추합니다. 오리도 좋고 얇게 저민 소고기를 구워서 부추를 곁들인 샐러드와 함께 해도 맛이 좋죠.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수삼 샐러드와 오리로 원기충전해보세요. 아시죠? 오리고기는 다이어트식으로 좋다는 거, 잠시 다이어트 걱정은 접고 맛있게 즐기세요.

재료: 훈제오리, 찹쌀가루, 수삼, 대추, 사과, 베이비채소, 사과, 양상추

겨자소스 (1인기준): 겨자 1/2ts, 매실청 2ts, 설탕 1ts, 식초 2ts 잣가루 1ts, 올리브유 2ts, 소금약간

1. 베이비 채소와 양상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차가운 물에 담가 두고 먹기 전에 물기를 잘 없애줍니다.
2. 수삼과 대추, 사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를 썰어서 준비합니다. (Tip 사과는 갈변되므로 시간이 걸리면 설탕물에 담가 두세요.)
3. 분량의 겨자 소스를 만들어 준비합니다.
4. 훈제오리의 기름기를 제거한 후 찹쌀가루를 살짝 묻혀서 오일에 구워 줍니다.
5. 키친타올에 찹쌀구이 오리의 기름을 뺀 후 샐러드와 함께 접시에 담아준 후 먹기 전에 소스를 뿌려줍니다.

위키트리 2013. 07. 23

나눔축산운동본부, 하반기 축산환경운동 전개

▲제1회 나눔축산과 함께하는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7월 23일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사회 자리에서 열렸다. 부문별 금상과 은상 수상 어린이들이 운동본부 이창호 상임공동대표(뒷줄 오른쪽부터), 남성우 상임공동대표, 서응원 이사, 이종율 이사, 김연화 감사와 기념촬영을 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가 '깨끗한 축산환경운동(클린 그린 아트팜 프로젝트)'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남성우 · 이창호)는 지난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제2차 이사회를 갖고, '깨끗한 축산환경운동'을 범축산업계의 나눔축산운동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축산환경운동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과 연계해 깨끗하고 친근감 있는 축산환경과 개방적이고 환영받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국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깨끗한 축산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축산관련단체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운동본부는 8월 중 발대식을 개최하고 축산환경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사진 콘테스트도 열어 우수농장에 나눔축산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를 주재한 이창호 상임공동대표(축단협회장)는 "축산환경운동을 시도별로 확산시켜 효과를 분석해보고, 필요할 경우 월 2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나눔축산운동 활성화를 위해 운동본부 이사들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 동참을 독려해 나가자"고 말했다.

'축산환경운동'은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농장주변 환경정화 운동(클린)으로, 축산단지 주변 영농 폐자재 수거와 마을 주변 생활쓰레기 수거 작업을 펼친다. 다음 나무심기 및 화단조성 운동(그린)을 통해선 축산농가 주변 조경수 식재와 진입로 화단, 꽃길, 잔디밭 조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축사 벽화 그리기 운동(아트팜)은 봉사단체와 연계해 축사와 창고 외벽에 벽화를 그려 아름다운 농장을 만드는 작업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깨끗한 축산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생산자단체에는 운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이날 이사회 전 제1회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갖고 이현주 어린이(군문초 4년, 초청가족부 금상)를 비롯한 4개 부문 금상과 은상에 선정된 어린이를 시상했다. 축산을 주제로 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지난 5월24일 안성팜랜드에서 열렸었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013. 07. 24

멸종위기 뿔쇠오리 번식 생태 확인돼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뿔쇠오리의 번식생태가 최초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전남 신안군 구굴도에서 뿔쇠오리의 번식개체군 크기, 번식성공률, 주요 먹이활동 지역 등 전반적인 번식특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자세한 경로, 번식성공률 등의 번식생태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구굴도에서 22쌍의 번식 둥지를 관찰한 결과 뿔쇠오리의 번식성공률은 53%로 조사됐다. 이러한 구체적인 번식생태는 1983년 국내에서 뿔쇠오리의 번식이 확인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위치가 자동 저장되는 소형 위성 지리 정보 장치 시스템(GPS) 기록 장치를 이용해 뿔쇠오리의 먹이활동 거리를 조사한 결과 번식둥지가 있는 구굴도에서 20~50㎞까지 이동했다가 24시간 만에 되돌아온다는 구제적인 행동반경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해가 진 후 번식지로 돌아온 뿔쇠오리는 곧바로 둥지로 가지 않고 주변 해상에서 3시간 정도 머문 후에 둥지로 이동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번식지는 물론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해역까지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뿔쇠오리는 크기가 24㎝ 정도이며 머리 뒤쪽에 뿔처럼 긴 머리 깃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인도에서만 번식하는데 개체 수는 1만 마리 이하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Ⅱ급, 천연기념물 450호로 지정돼 있으며 신안군 구굴도, 독도, 제주도, 다도해해상 백도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번식은 도서지역의 경사가 심한 곳의 바위틈이나 좁은 굴에서 하는데 보통 알을 2개 낳아 암수가 번갈아 가며 30일 정도 알을 품는다. 새끼는 부화한지 하루나 이틀 만에 어미를 따라 바다로 나가며 바다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알려진 생태가 거의 없어 학자들 사이에서는 '신비의 새'로 불린다.

뉴시스 류난영 기자 2013. 07. 25